

“자영업자 부담 가중” vs “물가 못미쳐 실질임금 삭감”

내년 최저임금 9860원 결정 반응

“사업을 정리하고 차라리 알바(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겠어요.”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3000원 수준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알바 고용을 줄이고 주-야간 근무를 직접 뛰어야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달리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대학생 안모(여·22)씨는 “이번 최저임금은 1만원에 넘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금 오른 것 같다”며 “밥 한 끼 때우는데도 1만원은 기본이다. 고물가 시대에 고작 20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시간당 9860

사용자 측 “업종별 차등 적용·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필요”

노동계 “2년간 물가 폭등 반영 못해 고통... 1인 생계비도 안돼”

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지역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영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에 유감을 나타낸 반면, 노동계는 물가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으로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경영계 등 사용자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쏟아냈다.

우선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용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기대한다”는 말과 함께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

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조지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투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친 이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결정 산식도 잘못된 예측으로 물가 폭등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임금이 올라도 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린 현실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먼나라 얘기가 됐다”라며 “비혼 단신근로자(월평균) 생계비에도 턱없이 못미치고 물가 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도 외시한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박기용 기자 pboxer@

노란우산, 더 든든해진다

소상공인 안전망 지원 등 ‘종합플랫폼’ 탈바꿈
재난 등 4가지 지급 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를 소상공인의 안전망과 복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탈바꿈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가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16년이 되는 현재까지 재적가입자 171만명, 부금 23조원을 달성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복지 서비스 확충 등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

망과 혜택, 복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의 종합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초부터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가업소상공인, 관련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과제 발굴 및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우선 안전망 강화를 위해 협회 폐업 등 4가지 공제금 지급사유 외에 재난 등 4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이에 대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저금리 경영안정대출을 신설·확대하는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3대 정책보험 바꾸어 및 노란우산 폐업자 전용 재기 패스트트랙 등 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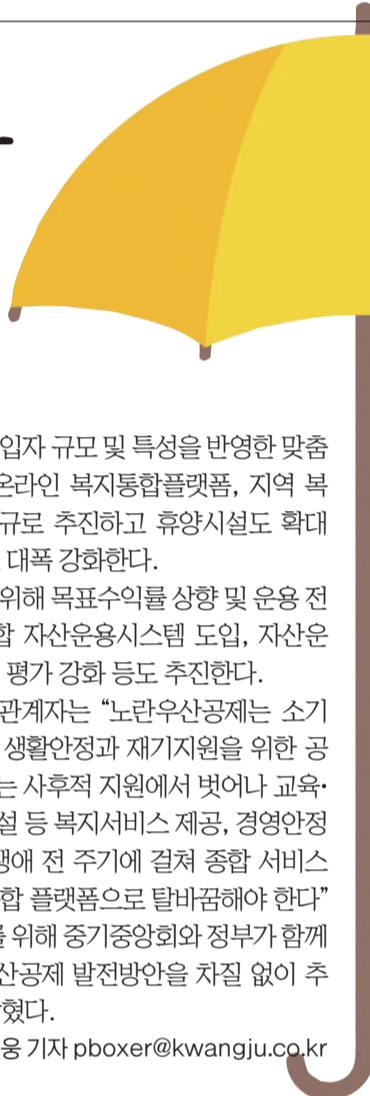
또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입정보 상시제공 및 복지사업 통합공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공제금 신속지급, 인터넷은행 등을 통한 가입제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입자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휴양시설도 확대하는 등 복지도 대폭 강화한다.

운영 혁신을 위해 목표수익률 상향 및 운용 전문성 강화, 통합 자산운용시스템 도입, 자산운용 성과점검 및 평가 강화 등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업계 첫 32Gbps GDDR7 D램 개발

고성능·저전력... 데이터 처리 속도 1.4배 향상

삼성전자는 ‘32Gbps GDDR7(Graphics Double Data Rate) D램(사진)’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24Gbps GDDR6 D램’을 개발한 데 이어, ‘32Gbps GDDR7 D램’도 업계 최초로 개발해 그래픽 D램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자평했다.

‘32Gbps GDDR7 D램’은 주요 고객사의 차세대 시스템에 탑재돼 연내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제품은 한층 향상된 고성능·저전력 특성을 갖춘 16Gb 제품으로, 기존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1.4배, 전력 효율은 20%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PAM3 신호 방식’을 신규 적용해 데이터 입출력 핀 1개당 최대 32Gbps의 업계 최고 속도를 구현했다.

‘PAM3 신호 방식’은 기존 NRZ 방식보다 동일 신호 주기에 1.5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32Gbps GDDR7 D램’을 그래픽 카드에 탑재하면 최대 초당 1.5TB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최대 1.1TB를 제공하는 GDDR6 대비 1.4배 향상된 성능이다.



삼성전자는 고속 동작에 최적화된 저전력 설계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 또한 20% 개선했다. 특히 노트북 등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응용처를 위해 초저전압을 지원하는 옵션도 제공한다.

또 삼성전자는 열전도율이 높은 신소재를 EMC 패키지에 적용하고, 회로 설계를 최적화해 고속 동작으로 인한 발열을 최소화했다. 이로 인해 기존 GDDR6 대비 열저항이 약 70% 감소돼 고속 동작에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한다.

‘GDDR7 D램’은 향후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HPC),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중국 젊은이에게 K-푸드 알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15일과 16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리그오브레전드’ e스포츠 대회와 연계해 ‘K-푸드 페스티벌’ 소비자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aT는 시안 e스포츠 테마파크를 찾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테마별 K-푸드 소개와 대규모 시음·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 메인무대에서 문화공연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김치전 쿠키 클래스’를 진행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aT 제공>

원윳값 인상률 결정 쉽지 않네

낙농진흥회 소위, 24일 재논의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19일 오후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다.

낙농가와 유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이날을 잠정 협상 기한으로 두고 원윳값 인상률을 논의했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

히지 못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윳값 가격 협상에 착수했고, 한 달 넘게 논의를 진행해왔다.

사룳값 인상 등 생산비 상승에 따라 올해 원윳값 인상은 예정돼 있다.

올해는 원유 L당 69~104원 범위에서 가격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낙농진흥회는 원윳값을 l당 49원 올렸고, 이에 따라 음용유(마시는 우유) 가격은 l당 996원이 됐다. 올해 원윳값이 최소치인 l당 69원이 오르더라도 음용유는 l당 1065원으로, 1000원을 넘게 된다.

한편 원윳값이 인상되면 흰 우유 제품가격도 오르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원윳값 인상에 따라 각 유업체가 흰 우유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다.

/연필뉴스



평동농협 장마철 긴급 드론항공방제 실시

평동농협은 오는 24일까지 광주광역시 인근 농지 140ha에 장마철 병해충 피해 예방 및 병해충 확산을 위한 드론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평동농협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빗줄기가 잠시 멈춘 사이 드론 4대를 활용해 긴급항공방제에 나섰다.

평동농협은 지속적인 방제 전문인력을 육성해 매년 항공방제 면적을 꾸준히 증가시켜 오고 있는데,

지속적인 방제활동으로 고품질 벼 생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은 “길어진 장마로 인해 도열병 등의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어 긴급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벼의 생육을 돕는 영앙제 살포를 병행하여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국세청, 수해 복구 성금 500만원 기탁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19일 수해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과 충청권, 경북지역 등에 집중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 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양동구 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08.24(+0.62)
▲ 코스닥	923.72(+9.58)
▼ 금리(국고채 3년)	3.543(-0.053)
▲ 환율(USD)	1265.60(+5.20)